

‘202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대통령상, 주민이 직접 만든 한강로동 맞춤형 생활 안심 디자인 선정

- ‘202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수상작 사업 부문 14점, 연구 부문 3점 선정·발표
- 10. 23.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에서 시상식 개최, 수상작 전시와 성과 발표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경배, 이하 공진원)과 함께 ‘202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수상작으로 사업 부문 14점, 연구 부문 3점을 선정해 발표했다. 영예의 대통령상(대상)은 서울 용산구청의 ‘주민참여 리빙랩 「용용랩」을 통한 한강로동 생활안심디자인사업’이 차지했다.

공공디자인으로 생활·교통·환경 문제 해결 넘어 주민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 운영 모델 구축

올해 대통령상(대상) 수상작은 주거지와 상업지구가 혼재돼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 주차난이 겹쳐온 한강로동에서 주민·구청·경찰이 리빙랩* 「용용랩」을 함께 운영해 지역 맞춤형 해법을 찾은 사례다. 상가로 오인돼 반복되던 주거지 무단침입에는 범죄 신고 정보무늬(QR코드)를 붙인 조명형 표식을, 상점가 소음에는 공공질서 알리미 조명을 도입하는 등 주민의 눈으로 찾은 문제를 공공디자인으로 풀어냈다. 생활·교통·환경 전반을 아울러 단순 민원 해결과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참여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 운영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리빙랩(Living Lab): 생활 현장을 실험실 삼아 주민이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설계·실증하는 사용자 참여형 방식

대통령상 외에도 사업 부문에서는 문체부 장관상 3점, 공진원장상 6점, 한국공공디자인학회장상(이하 학회장상) 4점을 선정했다. 문체부 장관상은

▲천안 두정도서관 ‘내일의 어린이실’ 조성 사업(천안시청 외 2곳), ▲사람이 떠난 무릉골 마을을 살린 ‘민둥산 장소 브랜딩, 명소화 사업’(정선군청 외 2곳),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안전 정보 디자인 문화 확산 프로젝트[(주)오세이프]가 받는다. 공진원장상은 ▲곰이 떠난 자리, 숲의 정원(국립수목원 외 1곳), ▲플랫폼(Platform) 111(코레일 외 2곳), ▲모두의 지하철 교통약자 안내표기 개선 프로젝트(서울교통공사 외 6곳), ▲선정릉 헤리티지 브랜드 경험디자인(강남구청 외 2곳), ▲제2차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경기도 외 1곳), ▲양육친화 주택 공공디자인으로 시작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수여한다. 학회장상은 ▲다목적 커뮤니티 라운지 ‘천샴썬터’(강동구청 외 1곳), ▲「수원 지관서가(止觀書架)」 조성(수원특례시청 외 3곳), ▲무장애통합놀이터 <큰나무 어린이집>(파주시청),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유니버설디자인 웨이파인딩 개발구현사업(서울디자인재단 외 1곳)이 받는다.

연구 부문 문체부 장관상은 ‘도시경쟁력 증진을 위한 도시공공미술 전략에 관한 연구’(박재은)가 받는다. 이 연구는 서울시 내 4,500여 점에 이르는 공공미술 작품, 조형물을 단순 장식이 아닌 도시계획의 자산으로 다루자는 ‘도시공공미술’ 개념을 제안하며 공공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진원장상은 ‘뮤지엄 사회적 처방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주하나), 특별상인 빅터 마골린상은 ‘청각장애인의 그룹 대화 경험 향상을 위한 증강현실(AR) 말풍선 연구’(김문정·김동환)에 수여한다.

공공디자인 영역 확대, 사용자의 경험에서 출발해 공공디자인으로 일상의 불편 해결

특히 올해 사업 부문 수상작들을 살펴보면 공공디자인의 영역이 공간과 시설물 조성을 넘어 공공서비스와 지역 브랜딩, 안내 체계, 정보 디자인까지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 공간의 실사용자인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한 도서관, 휠체어 사용자 관점의 안내표지처럼 사용자의 경험에서 출발해 공공디자인으로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려는 접근이 두드러졌다. 연구 부문에서도 출판작을 통해 공공디자인이 도시정책,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만나 학제 간 연구로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상식은 10월 23일(금),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6’ 개막행사로 문화역서울284 아र्टิโอ(RTO)에서 열린다. 사업 부문 수상작은 9월 16일에 개막하는 문화역서울284 기획전시 <돌봄의 디자인>과 연계해 전시하고, 연구 부문 수상작은 10월 24일(토), 문화역서울284 아र्टิโอ(RTO)에서 열리는 ‘유관학회 연합 학술대회’에서 그 성과를 발표한다. 선정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www.publicdesig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휘영 장관은 “올해 선정작들은 공공디자인의 주체가 관이나 전문가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가 공공디자인의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시도가 다른 지역과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해 국민이 일상에서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수상작 목록
따로 붙임 주요 수상작 이미지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책임자	과장	조경미 (044-203-2751)
		담당자	사무관	채영주 (044-203-2749)
<공동>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공디자인기반팀	책임자	팀장	전민경 (02-398-7960)
		담당자	선임	이용한 (02-398-7961)



□ 사업부문 (총 14점)

연번	상격	구분	사업명	대상지	주요내용	대표사진
1	대통령상	공공서비스	주민 참여 리빙랩 「용용랩」을 통한 한강로동 생활 안심 디자인	서울 용산구, 이음파트너스	주민·구청·경찰이 함께하는 주민참여 실험실 ‘용용랩’을 운영해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한강로동의 생활 불편과 범죄 우려를 주민이 직접 찾아 생활환경·골목길 안전 등 디자인 해결책을 마련해 적용	
2	문체부장관상	공공공간 및 건축	천안 두정도서관 ‘내일의 어린이실’	충남 천안시, 재단법인 씨앗, 더퍼스트팬권	어린이들이 직접 탐색, 창작, 연결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서관 어린이실을 새롭게 조성	
3		시각이미지	사람이 떠난 무릉골 마을을 살린 ‘민동산 장소 브랜딩, 명소화’	강원 정선군, 강원디자인진흥원, 이음파트너스	연 30만 명이 찾는 민동산의 브랜드 개발 및 주변 경관개선을 통해 산 아래 무릉리 마을까지 방문 동선 확장 유도, 브랜드 안내사인·조형물·굿즈·축제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	
4		시각이미지 (민간)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안전 정보 디자인 문화 확산 프로젝트	주식회사 오세이프	오세이프 자체 발행 안전문화매거진인 ‘오래 살고 볼 일이다’를 통해 안전 정보를 쉽고 흥미로운 시각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시민의 이해와 행동을 유도하여 안전문화 확산	
5	공진원 원장상	공공공간 및 건축	곰이 떠난 자리, 숲의 정원	국립수목원, 조경하다얼음	폐쇄된 국립수목원 곰 사육사를 모델정원을 적용한 실외정원으로 조성	
6		공공시설물	플랫폼(Platform) 111	코레일, 코레일유통, 홍익대학교	서울역 내 LED 미디어 월 설치를 통한 열차 정보, 미디어, 공익 메시지의 통합 운영	
7		시각이미지	모두의 지하철: 교통약자 안내표지 개선 프로젝트	서울교통공사,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무의, 홍익대학교, 눈디자인, 임팩트스퀘어, 현대로템	서울역, 시청역, 고속터미널역, 노원역 등 서울 주요 환승역 10곳에 엘리베이터 위치와 환승 경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표지 개발 및 설치	

연번	상격	구분	사업명	대상지	주요내용	대표사진
8		시각이미지	선정릉 헤리티지 브랜드 경험디자인	서울 강남구, 에스오에이피, 아트니어링	세계문화유산 선정릉의 역사적 가치를 담은 장소 브랜딩을 통한 역사문화 특화거리 조성	
9		공공정책	제2차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경기도, 이오디디자인연구소	31개 시·군의 다양한 여건에 유연하게 적용되고, 계획부터 심의·사업·행정까지 연계되는 경기도형 공공디자인 실행기반 마련	
10		공공정책	양육친화 주택 공공디자인으로 시작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아이사랑홈 인증제와 연계한 실무형 공공디자인 기준 마련 및 양육친화 주거환경의 전국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안	
11	학회장상	공공공간 및 건축	다목적 커뮤니티 라운지 ‘천삶쉼터’	서울 강동구, 서울특별시, 표표건축사사무소	자투리 공터를 다목적 커뮤니티 라운지로 개선해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	
12		공공공간 및 건축	수원 지관서가(止觀書架)	경기 수원특례시, 재단법인 지관, SK케미칼, 건축사사무소 리웅	수원시 평생학습관의 비어 있던 공간을 활용해 누구나 머무르고 싶은 인문학 기반 체류 공간 조성	
13		공공시설물	무장애 통합 놀이터 ‘큰나무 어린이집’	경기 파주시	장애-비장애 아동 모두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	
14		시각이미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유니버설디자인 웨이파인딩 개발	서울디자인재단	장애인, 외국인 등 모든 방문객을 위한 DDP의 안내체계 개선	

※ 학회장상 구분 : 한국공공디자인학회장상(다목적 커뮤니티 라운지 ‘천삶쉼터’), 한국디자인학회장상(수원 지관서가(止觀書架)),
디자인융복합학회장상(무장애통합놀이터 ‘큰나무 어린이집’), 한국공간디자인학회장상(DDP 유니버설디자인 웨이파인딩 개발)

□ 연구부문 (총 3점)

연번	상격	연구명	연구내용	주저자
1	문체부 장관상	도시경쟁력 증진을 위한 도시공공미술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시 내 4,500여 점에 이르는 공공미술 작품을 장식이 아닌 도시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한 ‘도시공공미술’ 개념 제안을 통해 도시 이미지 개선, 시민 참여 확대, 문화 향유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 프레임 도출	박재은 (서울특별시청 디자인정책관)
2	공진원 원장상	뮤지엄 사회적 처방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문화 향유 공간을 넘어 예방적 건강증진과 사회적 회복을 촉진하는 역동적 공공플랫폼으로서의 뮤지엄의 공공서비스 운영체계 설계 및 검증을 통해 고령화·만성질환·정신건강 위기·사회적 고립 등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공공적 실천 모델 제안	주하나 (PSDI 심리사회 디자인연구소)
3	특별상 (빅터 마골린상)	청각장애인의 그룹 대화 경험 향상을 위한 AR 말풍선 연구	청각장애인이 그룹 대화 중 놓치기 쉬운 비언어적 감정 정보를 증강현실(AR) 환경에서 직관적으로 시각화 하는 ‘AR 말풍선’ 시스템 제안을 통해 대화 맥락에 대한 이해도,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AR 인터페이스 설계 전략과 디자인 원칙 도출	김문정, 김동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